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 : 성격강점과 심리적 안녕감을 중심으로

김은미

건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Factors Affecting Adapt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to South Korean Society: Character Strength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Eun-Mi Kim

Konyang Cyber University. 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Professor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남한에서의 적응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강점을 확인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돕는데 있다. 117명의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심리적 안녕감과 성격강점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남한에서의 정착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강점의 하위 요소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PROCESS Macro의 Model 1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성격강점의 하위요인인 지혜, 인간애, 용기, 정의, 절제, 영성 간에는 상관이 있었으며, 성격강점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를 알아본 바, 주효과가 나타났다. 즉 성격강점의 하위요인의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성격강점의 하위요소중 용기가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에서 정착기간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아울러 논문의 한계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 성격강점, 심리적 안녕감, 북한이탈주민, 정착기간, 적응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daptation factor to North Korean refugees by ident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 strengths affecting adaptation proc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PWB) in South Korea. The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PWB and character strength of 117 participants and identified the sub-factors of character strength that affect the settlement period in South Korea.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he Model 1 of Process Macro and SPSS 22.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a correlation between PWB and sub-factors of character strength such as wisdom, humanity, courage, justice, temperance, and spirituality. The main effect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WB and sub-factors of character strength by independent variables. The level of PWB increased with the level of sub-factors of character strength. The moderate effect was showed in the courage of the settling period in relation to PWB. Finally,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was discussed.

Key Words : Character strengths, PWB, North Korean refugees, Settlement period, Adaptation

1. 서론

1.1 서론

북한 이탈 주민은 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사정 악화

를 계기로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8명 947명, 1999년 100명, 2002년 1,000명을 넘어서 이래 2006년 2,000명을 초과하였으며, 2007년 2월북한 이탈 주민 총 입국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고, 2010년 11월에는 2만 명

*Corresponding Author : Eun-Mi Kim(minjk@kycu.ac.kr)

Received February 22, 2019

Accepted March 20, 2019

Revised March 6, 2019

Published March 28, 2019

을 넘어섰다. 한편, 2012년 이후 부터 연간 1,500여명대로 입국인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2015년도는 1,275명, 2016년도는 1,418명, 2017년 1,127명이 입국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6년 8월 기준 29,830명이 입국하여, 2018년 12월까지 총32,476명이 한국에서 정착하고 있다[1].

초창기의 정책적 측면과 관련분야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특성, 정착과정에서의 어려움, 정신건강 문제 등이 주요 관심이 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 입국한 이래 20여년이 지나갔고, 이제는 이들이 남한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지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음이 연구결과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2-7]. 탈북초기에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탈북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를 위한 정착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5]. 한편 6개월 이후의 적응의 과정에서 보면, 남성이 더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알코올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남한사회에서의 적응의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은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8].

한국에 입국한지 길게는 20여년이 지난 지금 이들은 얼마나 잘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에 남한사회의 얼마나 잘 적응해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시점이라고 본다. 새로운 문화에 잘 적응하기 위한 자원을 북한이탈주민의 내적인 성격차원에서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북한 이탈 주민들은 새로운 문화인 남한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많은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9].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탈출하여 국내 입국하기까지 상상하기 어려운 물리적·신체적·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부분은 남한사회에서 정착 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들의 심리적인 적응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그동안 살아왔던 지역의 문화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내·외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경제활동이나 새로운 문화에 대한 이해, 새로 형성해야 하는 인간관계 등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며, 그 과정에서 많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한다[9]. 남한 사회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탈북 가정의 구성원들은 입국 전에 비해 의사소통이나 가족 결속력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고 하였으나, 가족의 권력관계는 더 나빠졌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부부관계에서 보다 더 좋지 않아졌으며, 2년 반 이후에도 가족 결속력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어, 이러한 요소들이 잠재적인 가족 갈등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3]. 가족과의 동거는 일종의 지지망의 역할을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지만[10-12]. 인간관계와 문화적응 측면에서의 능력부족과 이로 인해 직업을 얻지 못해서 생기는 경제적 곤란이 컸으며 특히 여성들은 안정된 직장이 없고 취직이 잘 되지 않는 남편과 많은 갈등을 겪고 있었다. 부부간의 성격차이나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였으며, 종교나 옷차림, 남녀관계에서의 역할과 태도와 관련하여 자녀와 갈등이 생기기도 하였다[9].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하겠다[3].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에 관한 종단연구들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수준은 3년 동안에 걸쳐 전반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남성의 우울 수준이 더 뚜렷하게 증가하였다[13]. 남한사회에서 겪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문화차이에 대한 인식, 문화적응 스트레스 등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에 비교적 일관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 10-12].

증가하는 북한 이탈주민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적응을 위한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적응에 관한 것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다룬 연구들은 적응 현황과 문제점 및 애착 등에 관한 연구[14]로 시작하여 적응을 사회적, 심리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 문화 심리적 측면 등 구체적인 영역으로 세분화 하여 적응을 연구[15, 16]하는 쪽으로 확장되었다. 이에 더하여 이들의 심리적 적응과 정신건강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들도 축적되어 왔다[6].

입국초기단계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상태는 이후의 심리적 적응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며, 남한 사회에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게 위하여 시급하게 개입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이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7].

긍정심리학은 정신건강을 단순히 손상과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 안녕감과 효과적인 기능을 갖춘 상태로 정의내림으로써 개입의 목표를 증상제거 이상의 안녕감 증진으로 확장시켰다. 보다 적극적이고 확장된 의미의 정신건강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증상제거를 위한 개입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인간의 긍정적인 측면 즉 강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어졌으며, 성격강점을 개발하고 함양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인간의 성격강점 및 덕성은 24개의 성격강점과 6개의 상위덕목으로 구성되어 있다[17].

강점이 새로운 정신건강 모델의 근간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강점중심의 인간 이해는 많은 관심을 끌었다[18, 19]. 이런 관점에서 24개의 성격강점과 삶의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20]에서 낙관성과 열정, 사랑, 감사, 호기심을 삶의 만족도와 매우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반면, 겸손이나 창의성, 학구열, 지혜, 심미안, 신중성은 삶의 만족도와 상관이 낮았다[19].

성격강점은 다른 긍정 결과들과도 밀접한 관련을 보였는데, 청소년의 학업성적을 잘 예측한 강점은 끈기였으며, 성인의 안정애착을 가장 잘 예측한 강점은 사랑인 것으로 나타났다[19].

삶의 질은 크게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관적 안녕감은 개인의 삶의 질을 크게 두 가지의 구성요소로 판단한다. 첫 번째는 삶의 만족도로서의 삶의 상황에 대해 내리는 인지적 측면이다. 즉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두 번째는 객관적 상황들에 대해 정서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감정에 근거한 평가로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으로 나누며, 서로 독립적인 차원이다[22].

행복을 측정하는 많은 연구들은 주관적 안녕감이 삶의 질의 문제를 단순화시켰다고 보고 자기실현적 관점에서 심리적 안녕감을 고려하게 되었다. Ryff[24]는 각 개인의 참된 잠재력이 최고치로 추구되기 위한 노력이 전 생애를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심리적 안녕감이라 하였다. 그는 심리적 안녕감의 차원은 자아수용성,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 등 6가지로 구성된다고 하였다[17].

류정희와 이명자[23]의 연구에서 보면, 심리적 안녕감이 주관적 안녕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과 성격강점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북한 이탈주민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강점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셀리그먼은 인간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며 성장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존재이며 우리 안에 있는 최선의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관심을 부정적인 관점보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스스로가 갖고 있는 강점과 덕성, 최선의 가능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5].

1998년 북한이탈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지 20여년을 넘어서고 있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남한 사회에서 적응해 가고 있는 바, 기존의 연구들은 부적응적인 측면을 줄임으로서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긍정심리학적 관점에서 북한이탈 주민의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을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긍정심리학에 바탕을 두고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적응적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남한에 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녕감과 성격적 강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적응하는 과정에서 정착기간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요인을 알아보고 이들의 안정적인 적응을 돕고 긍정성의 발견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가설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 가설 1. 심리적 안녕감과 강점 그리고 강점의 하위요인은 정적인 상관을 나타낼 것이다.
- 가설 2. 강점 그리고 강점의 하위요인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주효과는 모두 유의한 인과관계를 나타낼 것이다.
- 가설 3. 강점의 하위요인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정착기간이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2. 연구방법론

2.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2016년 9월부터 11월까지 대전하나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전과 충남지역에 거주

하는 있는 북한 이탈주민들에게 연구내용에 대한 협조 및 동의를 구하고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총 131명이었으며,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14명의 자료를 제외하여 총 117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응답자들의 나이는 10대 1명(9%), 20대가 18명(15.4%), 30대는 39(33.3%), 40대는 59(50.5%)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자가 53명(45.3), 여자는 64명(54.7)이며, 교육수준은 무학이 3명(2.6%), 초졸 이하는 6명(5.1), 중졸이하는 35명(29.9), 고졸이하는 64명(54.7%), 전문대졸은 8명(6.8%), 대졸은 1명(9%)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를 살펴보면 이혼이 24명(20.5%), 미혼이 47명(40.2%), 기혼이 46명(39.3%)으로 나타났으며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인원은 69명(59%), 무교라고 응답한 인원은 48명(41%)으로 나타났다. 남한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기간으로 살펴보면 5년 이상으로 거주한 사람은 62명(53%), 5년 이하로 거주한 사람은 55명(4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정착한 시기를 구분하기 위하여 중앙값을 사용하였다. 자신을 포함한 가족이 남한에 거주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71명(60.7%),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46명(39.3%)로 나타났다(Table 1 참고).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ase(N)	ratio(%)
age	10's	1	.9
	20's	18	15.4
	30's	39	33.3
	40's	59	50.5
sex	male	53	45.3
	female	64	54.7
level of education	no school	3	2.6
	below elementary	6	5.1
	below middle	35	29.9
	below high	64	54.7
	college graduation	8	6.8
	university graduation	1	.9
marriage	divorce	24	20.5
	single	47	40.2
	married	46	39.3
religious	christian	49	41.9
	buddhism	13	11.1
	catholic	7	6.0
	atheism	48	41.0
settlement period	below 5 years	62	53.0
	more than 5 years	55	47.0
live together in South Korea	yes	71	60.7
	none	46	39.3
	Total	117	100

2.2 측정도구

2.2.1 성격강점척도

긍정적 성품과 덕목을 측정하기 위해 권석만등이 개발하고 표준화한 자기보고형 성격 강점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피터슨과 셸리그먼이 제시한 VIA(Values in Action) 부류체계에 따라 6개의 핵심덕목과 24개의 하위강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긍정적 진술 18문항과 부정적 진술 21문항의 총 3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형식을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부정적 문항 21개는 역채점 하였으며, 이 척도의 문항은 6가지 덕목인 지혜, 용기, 사랑과 인간애, 정의, 절제, 영성과 초월요인의 하위척도로 나누어지며, 척도 중 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척도로 성격강점이 결정된다. 각각의 하위요인에서도 신뢰도 계수가 높지 않아, 신뢰도 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제외하고 분석이 이루어졌다. 성격강점 하위요인에 대해 내용타당도가 검토 되었으며,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지혜(9문항)가 .43, 인간애(4문항)는 .39, 용기(4문항)가 .50, 정의(4문항)는 .36, 절제(4문항)는 .40, 영성(14문항)은 .52 였으며, 평가에 사용된 전체 신뢰도는 .79이었다. 성격강점의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에 대해 논의에서 기술하였다.

2.2.2 심리적 안녕감 척도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Ryff[24]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를 김명소 등[25]이 한국판으로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자아수용성(8문항), 긍정적 대인관계(7문항), 자율성(8문항), 환경지배력(8문항), 삶의 목적(7문항), 개인적 성장(8문항)의 6개 차원에서 총 46문항이며,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항으로 예비검사를 거쳐 총 34문항으로 구성하여 Likert 5점 척도 상에 응답하게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으며,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신뢰도(Cronbach 의 a)는 .68 이었다.

2.1.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을 활용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각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분석은 Hayes[26]가 제안한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Model 1을 통해 분석하였다.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table

	1	2	2-1	2-2	2-3	2-4	2-5	2-6
1. PWB	1							
2. character strengths	.68**	1						
2-1. wisdom	.37**	.53**	1					
2-2. humanity	.36**	.65**	.31**	1				
2-3. courage	.45**	.65**	.17	.31**	1			
2-4. justice	.45**	.63**	.26**	.18	.19*	1		
2-5. temperance	.48**	.75**	.23*	.33**	.37**	.42**	1	
2-6. transcendence	.66**	.81**	.37**	.45**	.53**	.42**	.58**	1
Mean	3.00	2.98	3.16	3.07	2.77	3.03	2.89	2.95
standard deviation	.36	.37	.44	.60	.61	.62	.65	.42
Skewness	.47	.84	.59	-.06	.10	.31	.05	.86
Kurtosis	-.15	2.40	2.61	.22	-.05	.52	.24	1.78

* $p < .05$, ** $p < .01$

3. 연구 결과

3.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3.1.1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심리적 안녕감과 강점 및 강점의 하위요인인 지혜, 인간애, 용기, 정의, 절제, 영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3.1.2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측정된 주요 변인과 변인의 하위요인들의 상관계수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심리적 안녕감과 강점은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r = .68, p < .01$). 또한 심리적 안녕감과 감정의 하위요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지혜($r = .37, p < .01$), 인간애($r = .36, p < .01$), 용기($r = .45, p < .01$), 정의($r = .45, p < .01$), 절제($r = .48, p < .01$), 영성($r = .66, p < .01$) 모두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강점 및 강점의 하위요인들은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강점 및 강점의 하위요인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3.2 강점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정착기간의 조절효과

3.2.1 강점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단순회귀분석

강점 및 강점의 하위요인들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Table 3 참고), 강점이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

한 정적 효과가 나타났다($\beta = .69, p < .001$). 또한 강점의 하위유형 모두 심리적 안녕감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혜($\beta = .37, p < .001$), 인간애($\beta = .36, p < .001$), 용기($\beta = .45, p < .001$), 정의($\beta = .45, p < .001$), 절제($\beta = .48, p < .001$), 영성($\beta = .66, p < .001$)이 미치는 심리적 안녕감의 주효과 모두 유의한 정적효과가 나타났다. 즉 강점 및 강점의 하위 요인의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 수준 역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Table 3 참고).

Table 3. regression analysis of character strengths and PWB

dep var.	indep var.	B	S.E	β	t	R^2	ΔR^2	ΔF
character strengths	character strengths	.66	.07	.68	9.88***	.46	.45	97.62***
	wisdom	.31	.07	.37	4.24***	.14	.13	17.99***
	humanity	.22	.05	.36	4.15***	.13	.12	17.18**
PWB	courage	.27	.05	.45	5.36***	.20	.19	28.75***
	justice	.27	.05	.45	5.44***	.21	.20	29.57***
	temperance	.26	.05	.48	5.79***	.25	.22	33.51***
	transcendence	.58	.06	.66	9.37***	.43	.43	87.77***

** $p < .01$, *** $p < .001$

3.3.2 강점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정착기간의 조절효과

강점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정착기간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이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과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강점과 하위요인인 지혜, 인간애, 정의, 절제, 영성은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정착

기간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용기는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에서 정착기간의 조절효과가 나타났고, 자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용기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착기간의 조절효과를 알아본 결과, 1단계에서 용기와 정착기간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용기의 주효과는 유의하였으나($\beta=.45, p<.001$), 정착기간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beta=.02, NS$). 2단계에서 상호작용항(용기×정착기간)을 투입한 경우, 상호작용항의 투입은 .03의 변화량이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즉 용기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정착기간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Table 4. regression analysis of moderate effect

step	indep	B	SE	β	t	R^2	ΔR^2	ΔF
1	courage	.27	.05	.45	5.36***	.20	.19	14.30**
	settle period	.00	.00	.02	.27			
2	courage	.28	.05	.46	5.43***			
	settle period	.00	.00	-.01	-2.22	.23	.03	11.50**
	courage×settle period	-.00	.00	-.20	-2.22*			

* $p<.05$, ** $p<.01$
NS=Not Signific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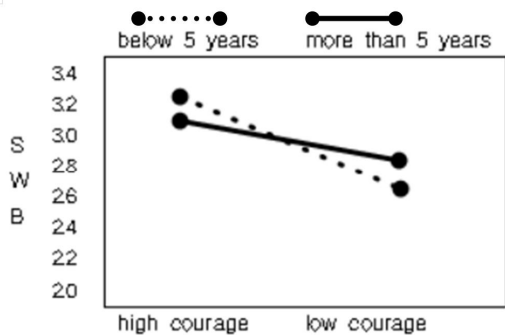


Fig. 1. moderate effects of settle period

4. 논의 및 제언

위의 결과를 살펴보면, 심리적 안녕감과 강점 그리고 강점의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나 가설 1은 지

지되었다. 용기와 지혜, 정의와 인간애를 제외한 항목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성이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삶의 만족도와 강점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던 선행연구결과들[20, 21] 과 일치한다고 하겠다.

성격강점과 하위요인들이 심리적 안녕감을 얼마나 설명하는 가를 확인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성격강점과 하위요인 모두 심리적 안녕감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다. 하위요인인 지혜, 인간애, 용기, 정의, 절제, 영성에서 유의한 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는 성격장애와 성격강점과 안녕감의 관계를 분석한 김지영, 권석만[19]의 자료와 일치한다고 하겠다. 성격강점과 심리적 안녕감이 주효과가 나타난 바, 성격강점이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강점과 강점의 하위요인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긍정적 성품을 갖고 있는 것은 새로운 사회에서 적응해 가는 능력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심리적 안녕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격강점의 하위요인에서는 다른 하위요인보다 영성이 가장 설명력이 높았다. 영성은 인생의 초월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과 믿음, 수행노력을 의미한다. 즉 궁극적인 것, 절대적인 것, 영원한 것, 성스러운 것을 추구하는 태도이다 이런 태도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의식을 느끼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17]. 이는 성인의 영성, 희망, 외상후 성장 경험과 삶의 만족의 관계를 분석한 배상정 등[27]의 결과를 살펴보면, 영성이 삶의 만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갖고 있는 영성적 요소가 심리적 안녕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이나 불안 증상이 남한 거주기간에 따라 변화하였는데, 홍창형 등[28]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율의 변화에서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PTSD 유병율이 27.2%에서 40%로 감소하였다. 한편 우울수준은 3년간 유의하게 증가한 연구도 있어[9],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성격과 같은 강점의 요소들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정착기간의 차이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분석을 하였다. 피험자들의 정착기간을 5년 이내와 이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바, 용기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용기는 목표추구과정에서 외부적·내면적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이를 극복하면서 목표를 성취하려는 강인한 투지를 의미한다. 강렬하게 분발하고 맹렬하게 추진하는

능동적인 강점들뿐만 아니라 고통과 좌절을 인내하고 유혹을 견뎌내는 수동적인 강점들도 있다[17]. 정착 기간이 5년 이하의 경우 용기의 정도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쳤으며, 5년 이상의 경우 그렇지 않았다. 즉, 남한에 이주한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의 용기의 정도는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쳤지만, 정착기간이 오래될수록 용기의 정도가 심리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도가 크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용기는 남한사회에 처음 정착해 나갈 때 심리적인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어느 정도의 정착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다른 요인들이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성격강점을 갖는다는 것은 심리적 안녕감을 경험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성격강점을 찾아주고 이를 통한 정착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처음 한국에 입국하였을 때 조속한 안정과 정착을 위해서는 영성을 통한 삶의 의미와 목적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성격강점 하위요인과 심리적 안녕감의 신뢰도가 충분히 높지 않았으며, 그 이유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한계점과 제안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선,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충분한 피험자 수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피험자 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검사결과에서 충분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바, 충분한 시기를 두고 적절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피험자들의 설문지에 대한 피로와 동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 이탈주민은 남한에서 많은 설문의 대상자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 응답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동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언어적 표현에서의 이해력의 한계와 관련되는 부분이다. 오랜 기간의 문화적·언어적 차이로 인해 설문 문항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서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문화적, 언어적 요소가 제약이 예상되는 집단을 연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예비조사와 같은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남한과 북한은 대인관계에 대한 신념과 의사소통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즉, 북한은 대인관계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개방성이 매우 낮고, 인간관계 형성이 매우 선별적인 경향이 있다. 문화와 규

범, 가치관에서도 상이하[6]. 이러한 소통 방식으로 인하여 응답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우선, 북한 이탈주민의 적응에 긍정적인 성격적 강점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 지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긍정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가진 긍정적 성품확인 통해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바, 부정적인 관점에서 대하기보다 긍정적인 관점에서의 적응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정착기간과 문화적응 유형 간에 관련성에서 U자형 적응모델이 제안되고 있는배[2], 기간을 두고 깊이 있는 자료를 축적한다면 이들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개입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으리라 본다. 셋째, 남한에서의 적응에 도움이 되는 성격적 강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정책적으로 좀 더 빠른 시간에 남한 사회의 적응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이후 통일이 되었을 때 서로의 사회와 문화에 적응을 도울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Unificaion. The Policy of north Korean Refugees. DOI:<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
- [2] E. K. Kim & J. H. Kwon. (2009). North Korea-Defector Acculturation Scale Validation Study.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8(3), 761-781. DOI :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2794470>
- [3] H. K. Kim & H. K. Shin. (2010). Psychological Symptoms before and after the Settlement in the South Korean Society on North Korean Refugees according to Gender and Ag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9(4), 707-724. DOI :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6368167#>
- [4] B. N. Choi & H. K. Kim. (2011). Effects of Traumatic Experiences and Personality Pathology of North Korean Female Refugees on Psychological Symptom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3(1), 195-212. DOI :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636816>
- [5] Y. M. Sohn S. J. Kang & C. Y. Park. (2014). The North Korean Female Refugees' Personality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0(1), 19-44.

- DOI :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6373957>
- [6] M. S. Chang & E. J. Son. (2014). Complex PTSD Symptoms and Psychological Problems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9(4)*, 973-996.
DOI:<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6369118>
- [7] N. Han & S. Y. Lee. (2015). Future Direction on Psychological Research to Prepare for Korea Reunification: Focusing on Studies on North Korean Refugee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4(2)*, 485-512.
DOI :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6501458?>
- [8] M. J. Keum. (2015). The Trend of Research Related to North Korean, North Korean Refugee, and Unification in Korean Psychology: Analysis of researches in 14 Korean Journals of Psychology(2000-2013).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4(2)*, 541-563.
DOI :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6501460>
- [9] Y. A. Cho & W. T. Jeon. (2005). A Qualitative Study of North Korean Women Defectors' Adaptation to South Korean Life.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0(1)*, 17-35.
DOI :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6371960>
- [10] Y. H. Kim. (2006). Predictive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and Alcohol Abuse among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Mental Health and Social Work, 22(1)*, 149-180.
DOI :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6082037>
- [11] K. H. Lee & S. W. Bae(2006). Identifying Factors Affecting the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15(2)*, 1-28.
DOI :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1380821>
- [12] Y. A. Cho, Y. H. Kim & S. E. You. (2009). Predictors of Mental Health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Residing in South Korea over 7 year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1(1)*, 329-348.
DOI :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6369721>
- [13] Y. A. Cho, W. T. Jeon, J. J. Yu & J. S. Um. (2009). Predictors of Depression among North Korean Defectors:A 3-year follow-up Stud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7(2)*, 467-484.
DOI :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6369509>
- [14] I. J. Yoon. (1999). The State of Adjustment of North Korean Refugee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33(3)*, 511-550.
DOI : <http://lib.swu.ac.kr/search/detail/ART000000103403>
- [15] S. R. Lee. (1997). A Study on Acculturative Stress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Residing in South Korea.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5(1)*, 209-247. DOI : <https://www.dbpia.co.kr/SKnowledge/ArticleDetail/NODE02631938>
- [16] W. T. Jun. (1997). Adjust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Psychiatry investigation, 136(1)*, 145-161.
DOI : https://academic.naver.com/article.naver?doc_id=31667760
- [17] S. M. Kwon. (2008). *The Positive Psychology*. Seoul: Hakjisa.
- [18] J. Y. Kim. (2015). The Effect of Strength-based Intervention on Mental Health.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3)*, 495-513.
DOI : 10.17315/kjhp10.17315/kjhp.2015.20.3.001
- [19] J. Y. Kim & S. K. Kwon. (2015). The Influence of Character Strengths and Personality Disorders on Well-being and Depression. *Clinical Psychology in Korea: Research and Practice, 1(1)*, 1-19. DOI :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6597687>
- [20] N. Park. C. Peterson & M. E. P. Seligman. (2004a). Strengths of Character and Well-being,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 603-619.
DOI: 10.1521/jscp.23.5.603.50748
- [21] Y. J. Lim. (2010). *The Influence of Character Strengths and a Strength-Based Positive Psychotherapy on Happines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DOI :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2f73b5a38a313645ffe0bdc3ef48d419&outLink=N
- [22] K. H. Kim. (2006). *Relationship of Psychological well-Being with Family Relationship, Friendship, and School Adjustment of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DOI :

- https://academic.naver.com/article.naver?doc_id=30822512
- [23] J. H. Lyu & M. G. Lee. (2007).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ocial Well-Being in Korean Adolescents: Their Structure and Their Relationship to subjective Well-being.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1), 55-77.
DOI :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6372294>
- [24] C. D. Ryff.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DOI: 10.1037/0022-3514.57.6.1069
- [25] M. S. Kim, H. W. Kim & K. H. Cha. (2001). Analyses on the Construct of Psychological Well-Being(PWB) of Korean Male and Female Adult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5(2), 19-39. DOI :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6373119>
- [26] A. F. Hayes. (2013).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Journal of Educational Measurement*, 51(3), 335-337.
DOI : <https://books.google.co.kr/books?hl=ko&lr=&id=8ZM6DwAAQBAJ&oi=fnd&pg=PP1&dq=Introduction+to+Mediation,+Moderation,+and+Conditional+Process+Analysis:+A+Regression%E2%80%90Based+Approach&ots=20DdqGXd0H&sig=INy44Vwa5q0hnq8GcLibYY-aHW4#v=onepage&q>
- [27] S. J. Bae & N. M. Yang. (2014). The Relationship among Spirituality, Hope, Posttraumatic Growth and Life Satisfactio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6(3), 597-616.
DOI : https://academic.naver.com/article.naver?doc_id=288408620
- [28] C. H. Hong et al. (2006). A 3-Year Follow-Up Study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 Association*, 45(1), 49-56.
DOI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0990407>

김 은 미(Kim, Eun Mi)

[정회원]



- 1994년 2월 : 중앙대학교 심리학
과(문학석사)
- 2001년 8월 : 중앙대학교 심리학
과(문학박사)
- 2012년 2월 ~ 현재 : 건양사이버
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삶의 질, 재난심리, 범죄,
- E-Mail : minjk@kycu.ac.kr